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2. 12. 15
해외동향부 (제 6390)

■ **주요 뉴스:** 12월 FOMC, 0.50%p 인상. 파월 의장의 긴축의지 강조로 금리인하 기대 감소

○ ECB, '25년까지 역내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을 상회할 전망

○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 유가 상승 예상. 러시아의 석유 수출 감소 가능성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2월 FOMC 결과가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6%], 달러화 약세[-0.4%],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내년 금리인하 기대 저하, 성장둔화 우려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관련주 약세 등으로 약보합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5%,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경기둔화 전망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94.8원, -1.6원) 약보합, 한국 CDS 상승

		12/14일	12/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95.3	4,019.7	-0.61%
	유럽	442.51	442.60	-0.02%
	중국	3,176.5	3,176.3	0.01%
	일본	28,156	27,955	0.72%
	한국	2,399.3	2,372.4	1.13%
환율	달러지수	103.62	103.98	-0.35%
	유로화	1.0682	1.0633	0.46%
	엔화	135.48	135.59	0.08%
	위안화	6.9501	6.9517	0.02%
	원화	1,296.3	1,306.0	0.75%

		12/14일	12/13일	전일대비
국채 금리 10y	미국	3.48%	3.50%	-2bp
	독일	1.94%	1.93%	1bp
	영국	3.32%	3.30%	1bp
CDS 5y	한국	51bp	50bp	1bp
	중국	70bp	69bp	1bp
위험 지표	EMBI+	-	373	-
	VIX	21.14	22.55	-6.25%
원자재	WTI유	77.28	75.39	2.51%
	구리	385.8	384.0	0.47%
	금	1,807.3	1,810.8	-0.1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2월 FOMC, 0.50%p 인상. 파월 의장의 긴축의지 강조로 금리인하 기대 감소**

○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50%p 높인 4.25%~4.50%로 결정하여 그 동안 지속된 0.75%p 인상을 중단. 다만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최종금리는 5.1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9월(4.60%)에 비해 높은 수준. '24년, '25년 말의 금리는 각각 4.10%, 3.10%로 관측

○ 성명서 내용은 11월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의사를 피력

○ 내년 근원 PCE 물가상승률을 3.5%로 예상하여 9월(3.1%) 대비 상향했고, '24년, '25년 전망치는 각각 2.5%, 2.1%로 제시. 반면 '23년과 '24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과 비교하여 하향 조정(각각 1.2%→0.5%, 1.7%→1.6%)

○ 한편 파월 의장은 그 동안 신속하게 긴축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금리인상 종료에 아직 근접하지 않았으며,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강조

○ 이날 공개된 점도표와 경제지표 전망 등은 연준이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의 통화정책 전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시사(Corpay의 Karl Schamotta). 다만 내년에 금리인상 영향이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Principal Asset Management)

○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관련 영향으로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S&P500 3,995.3 -0.61%, 나스닥 11,170.9 -0.76%)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의 소비자 대출 연체율, 내년에는 13년래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

○ 소비자 신용평가기관 TransUnion은 소비자 신용이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신용카드 및 무담보 개인대출 연체율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각각 2.1%→2.6%, 4.1%→4.3%). 소비자들은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등에 직면해있다고 평가

■ **ECB, '25년까지 역내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을 상회할 전망**

○ 관계자에 따르면, ECB는 이번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향후 3년 동안 인플레이션 수준이 2%의 목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을 소지. 이는 최근 시장의 전망보다 보수적인 것이며, 이에 ECB의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역시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경로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

■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 11월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상승률은 10.7%를 나타내 전월(11.1%) 및 예상치(10.9%) 하회. 시장에서는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물가 상승세가 종료되었다는 의견이 부상. 다만 단기간 내에 영란은행의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Morgan Stanley, 중국 내년 성장률 전망을 상향. 경제활동 재개 등을 반영**

○ '23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5.0%→5.4%),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및 이동성 개선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23년 말까지 경제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무증상 코로나 감염자 발표 중단.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예정대로 개최**

○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무증상 감염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향후 증상이 있는 감염자만 보고한다고 발표. 이에 근거한 12/13일 감염자는 2249명에 불과

○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12/15~16일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릴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 유가 상승 예상. 러시아의 석유 수출 감소 가능성 반영**

○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으로 내년 1/4분기 러시아산 석유 공급은 전년동기비 14%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 반면 중국의 수요는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당초 추정보다 증가할 것으로 관측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5 현지시각 기준)**

○ ECB 및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11월 소매매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양호한 노동시장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Now comes the hard part)

○ 11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 그러나 12월 FOMC에서 연준의 '23년말 점도표 중위값은 5.1%로 상승했으며, 이는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

○ 특히 견조한 노동시장에 따른 높은 임금상승률 영향으로 연준의 물가목표 달성이 늦어질 소지. 또한 내년 실업률이 상승해도 연준이 완전고용 조건으로 제시한 수준(5%)을 하회한다면, 금리인상 기조 유지를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 이전과 달라 연준에게 난제 - WSJ**

(Unpredictable 10-Year Treasury Yield Poses Puzzle for Investors, Fed)

○ 통상 10년물 국채금리는 단기금리 전망, 연준의 금리인상 경로 등이 결정. 그러나 최근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10년물 금리는 11월 정점 대비 70bp 하락하고 장단기금리 역전 폭이 확대. 이는 내년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한 점을 반영했기 때문

○ 장기금리 하락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달성하려는 연준에게 부담으로 작용.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기에, 연준이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중국 경제, 급격한 방역정책 전환 전 이미 경기둔화 신호 감지 - 블룸버그**

(China's Economy Likely Worsened Before Abrupt Covid Policy Shift)

○ 최근 1~2개월 동안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크게 늘고 당국이 여러 도시에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소매업에 큰 피해 발생.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소매판매가 전년동월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동 기간 실제 자동차 판매가 9.5% 급감

○ 광저우 및 정저우와 같은 제조업 중심지의 경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업생산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 고정자산투자는 1~10월 5.8%에서 1~11월 5.6%로 감소가 예상되며 실업률도 상승할 소지

○ 정부는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려는 모습이나, 베이징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 중. 향후 엄격한 테스트 및 검역 방침 완화로 상당 기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

■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되었다는 확신은 시기상조 - 블룸버그**
(Don't Get Too Excited Over One Good Inflation Report)

○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 통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의 예상보다 하향추세를 보였지만, 일부 지표에서 물가 오름세가 진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 우선 에너지 가격 등은 이전 높은 수준이 낮아지는 과정의 기저효과가 반영

○ 또한 상품가격과 달리 서비스 가격은 상승 압력이 존재.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제품가격이 연초 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높다고 지적. 이들 요소로 인해 향후 물가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유럽의 반도체 경쟁, 인력 부족과 규제 등으로 어려워질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global microchip race: Europe's bid to catch up)

○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가 향후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 특히 유럽의 경우 반도체 생태계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강점인 부문도 장비, 원료 등으로 다양. 금년 초 유럽 집행위원회도 430억유로 투자계획을 발표

○ 그러나 여러 약점도 존재하는데 먼저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설계 부문이 취약. 일례로 10대 반도체 설계기업 중 유럽 기업은 전무. 또한 엄격한 환경규제 역시 많은 오염물질들이 투입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 반도체 기술자 등의 고급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미국 뿐 아니라 대만과 한국 등도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현재 10% 미만에 불과한 유럽의 반도체 점유율이 향후에도 정체될 우려

■ **캐나다 회사채 수요 증가, 미국 경기연착륙에 대한 회의감 확대가 원인 - 블룸버그**
(Bond Buyers Skeptical of Soft US Landing Eye Canadian Corpo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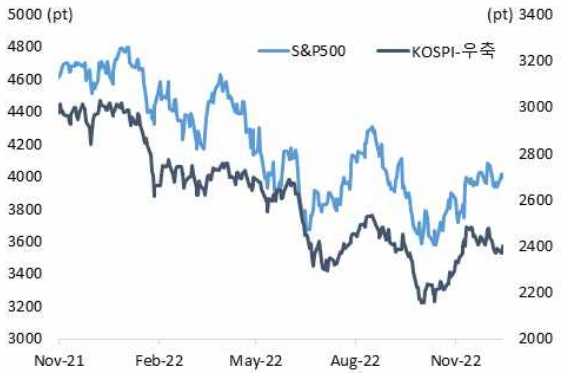
■ **중국 회사채 금리 상승, 일부 기업 집중된 유동성 지원 등이 반영 - 블룸버그**
(China Dollar Bonds Show Least Stress Since Evergrande Meltdown)

■ **세계 원유 수요, 향후 수년간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 - 블룸버그**
(Peak Oil Demand Is Nowhere in Sight)

■ **러시아 경제,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속적인 생산능력 저하에 직면 - Financial Times**
(Russia's wartime economy: learning to live without imports)

금융시장 주요 지표

S&P500 및 KOSPI



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

자료 : Bloomberg

달러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

자료 : Bloomberg

VIX 및 EMBI+

달러-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